EDU CALENDAR 이 주의 추천 활동

함께 만들어가는 디지털 세상

취재 김원묘 리포터 fasciner@naeil.com

IT 공모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초·중·고등학생 또는 동 연령대 청소년
접수	6월 5일 23시 59분까지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의	kcf.or.kr

2023년 제5회 한국코드페어 SW 공모전

청소년들의 소프트웨어(SW) 역량 강화와 SW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 행사가 열린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한국코드페어가 그것으로, 행사 기간 중 'SW 공모전' '해커톤' '온라인 SW 공부방'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이 각각 진행된다.

메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SW 공모전은 생활 관련이나 환경 문제 등 일상 속 사회 현안을 해결하거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작품 선정이 목적. 공모전 참가 부문은 초등부 · 중등부 · 고등부로 나뉘며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 또는 동 연령대 청소년이면 누구나 3인 이하 팀 또는 개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순수 애플리케이션 및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해 만든 소프트웨어 작품을 작품 요약서, 작품 설명서(예선심사용), 지도교사 확인서 등과 함께 한국코드페어 홈페이지(kcf.or.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에 국무총리상 각 1팀, 금상에 장관상 각 2팀 등을 시상하고, 은상 이상의 수상자에게 ISEF(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 한국대표단 선발 참가 기회를 제공한다.

영상 공모

안전한 근로 문화 만들기 2023 안전 보건 영상 공모전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 불감증을 줄이고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영상 공모전이 열린다. 참가를 원하면 생활 속 안전 행동 실천 유도, 근로 현장에서의 안전 문화 활동, 위험성 평가 활동 등을 주제로 5분 내외의 숏폼을 제작해 이메일(koshacontest@gmail.com)로 응모하면 된다. 브이로그나 UCC 등 장르의 제한은 없다. 최우수상 1팀에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 우수상 2팀에게 각각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 원 등을 시상한다.

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접수	6월 16일까지
주최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문의	kosh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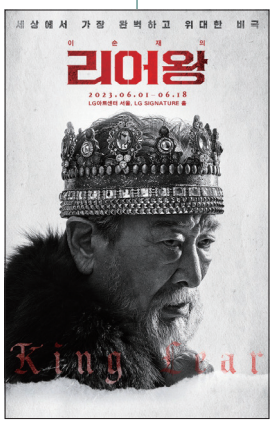
산업 경연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2023 엔지니어링 산업 경진대회

차세대 엔지니어 육성을 목적으로 열리는 '2023 엔지니어링 산업 경진대회'. 설계 아이디어 부문과 BIM 부문으로 나뉘며, 고등학생은 설계 아이디어 부문에 참여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산업 분야가 당면한 과제인 인구 감소, 탄소배출, 우주개발 등에 대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참가 주제다. 신청 및 작품 접수는 홈페이지(engcontest.or.kr)에서 가능하며,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 모두 참가할 수 있다. 금상 1팀에 산업부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 은상 2팀에 협회장상과 상금 100만 원 등을 시상한다. 수상자가 원하는 경우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출원 선행기술조사 지원 및 엔지니어링 기업 입사 시 협회장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대상	고등학교, 전문대 이상 재학생
접수	6월 9일까지
주최	산업통산자원부
문의	engcontest.or.kr

공연 전시



셰익스피어의 가장 탁월한 비극
연극 〈리어왕: KING LEAR〉

지난 2021년, 전 회차 매진 기록을 세웠던 연극 〈리어왕〉이 2년 만에 다시 막을 올린다. 주인공 리어왕은 지난 공연과 마찬가지로 올해 미수(米壽)의 나이인 대배우 이순재가 단독으로 맡아 열연을 펼친다. 〈리어왕〉은 오만함과 분노에 눈이 멀어 파국을 맞는 노년의 왕과 비극 속에서도 빛나는 충신들을 통해 인간 정체성의 냉혹함에 대해 성찰하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최고의 수작으로 손꼽히는 작품. 러닝 타임이 총 200분에 달하는 이번 무대는 이순재의 리어왕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공연이 끝나면 기네스북에 최고령 리어왕 배우로 등재를 신청할 예정이다.

장소	LG아트센터 서울 LG SIGNATURE 홀
일시	6월 1일부터 18일까지
문의	lgart.com

추천 영상

편의점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최초의 편의점에서는 뭘 팔았을까?〉

상영 교양만두

편의점의 시초 하면 일본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편의점은 1920년대 미국 텍사스의 한 얼음 가게가 시작이었다는 사실. 얼음을 보관하기 위해 어차피 창고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김에 얼음 외에 우유나 달걀 등 각종 식재료를 함께 판매했던 것이 시초다. 그때 정한 판매 시간이 바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즉 '세븐투일레븐'으로, 최초의 편의점은 그렇게 탄생했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지금 우리가 아는 형태로 발전해온 편의점. 이에 대한 각종 '알쓸신잡'이 궁금하다면 영상을 클릭해보자.

QR코드 찍고
추천 영상 바로 보기